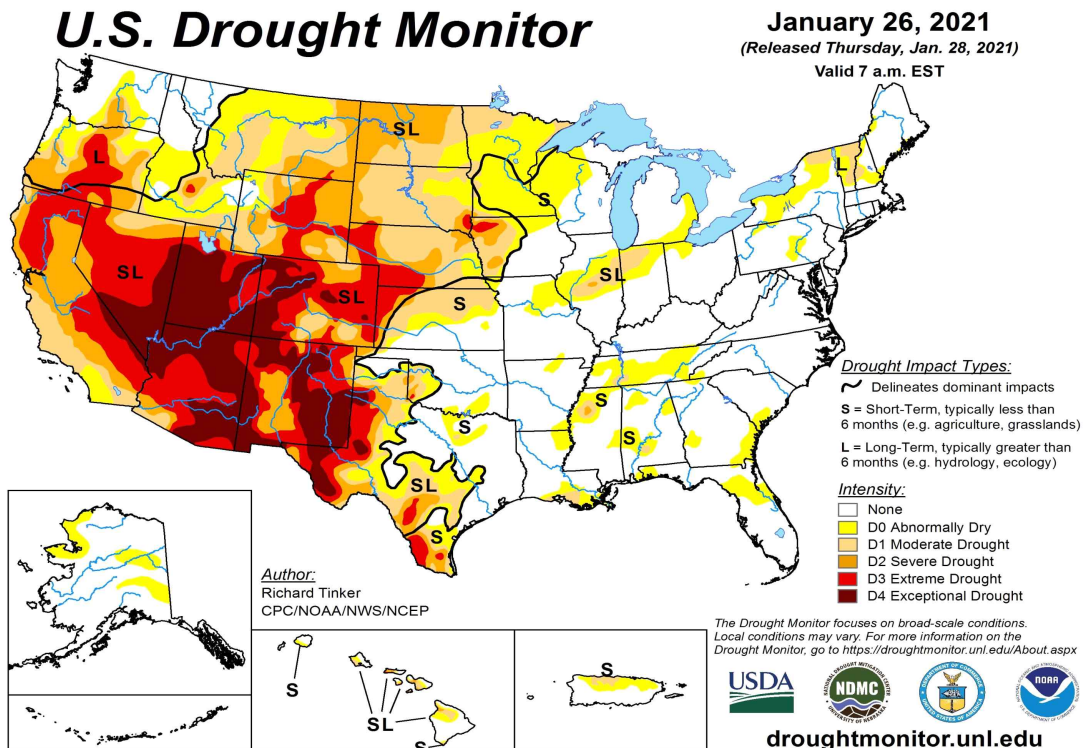


2월 2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8, No. 5)

□ 미국 기후 현황(1/24~1/30)

캘리포니아에서 현재까지 이번 철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폭풍이 산지 폭설과 함께 가뭄을 완화시켜주는 강수를 내려주었지만 국지성 홍수와 산사태를 일으켰다. 수일 동안 계속된 폭풍 전선의 영향이 캘리포니아를 넘어서 북서부, 남서부 및 그레이트 베이스까지 확대되었다. 주 후반, 마침내 그 서쪽 폭풍이 동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중서부에는 겨울 강수를, 남부 전역에는 소나기를 내렸다. 이전에 있었던 폭풍 전선 하나가 오자크 고원에서 버지니아 남부와 노스 캐롤리나 북부에 이르는 지역을 눈으로 덮으면서 미국 중부와 동부를 횡단하기도 하였다. 평원 북부, 중서부 위쪽 및 플로리다와 텍사스의 남쪽 구역을 포함하여 국내 다른 지역들은 대체로 건조한 날씨로 덮였다. 한편, 남부의 많은 곳에 온기가 머물러 있기는 했지만, 더 차가운 공기가 국내 많은 부분에 자리를 잡았다. 평원 중앙에 눈으로 덮은 지역은 물론이고 태평양 연안 주들 일부와 남서부를 포함하여 여러 지역들에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10° F 낮았다. 메인 주를 제외하고 대서양 중부 및 북부 주들에 추운 날씨(평년보다 5~10° F 가량 낮음)가 계속되었다. 고원 중앙에서 뉴 잉글랜드 남부에 이르는 선을 따라 그리고 그 북쪽에는 영하의 기온이 흔했지만 혹한의 조건 (-20° F 이하)은 대부분 미네소타와 노스 다코타 북부에 한정되었다. 반면, 멕시코 만 연안 서쪽과 중부 주들에서는 주간 평균 수치가 평년보다 5~10° F 높았다.



## □ 농업 현황 요약 ( )

: 내용없음

## □ 세계 기후 현황(1/24~1/30)

■ 유럽: 모니터링 기간 동안 대륙 대부분에서 따뜻하고 습한 날씨가 성행했다. 일련의 요란 때문에 계속해서 유럽 대부분에 비와 눈 (10~65 mm 액체 등량, 강수가 내리기 쉬운 산악 지역에서는 지역적으로 더 많이)이 내렸는데 특히 그리스와 발칸 반도 서쪽 지역에는 폭우 (75~150 mm)가 내렸다. 당연히, 대륙 나머지에 있는 휴면 중인 겨울 작물들은 물론이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반휴면 및 영양기 겨울 곡류들에게 공급된 수분들은 알맞은 수분이었다. 프랑스에서 발칸 반도까지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5° C 높았고 스페인에서는 평년보다 최대 7° C 높았다. 그 온기로 서부와 중부 재배 지역은 눈 덮임이 없었지만 독일 남동부에서 발트해 국가들까지는 얇은 눈덮임 (2~10 cm)이 남아 있었다; 또, 얇은 눈덮임이 있었던 지역들은 기온이 다소 낮았던 (평년에 더 가까운) 지역과 일치했다.

■ 구소련(서부): 내용없음

■ 동아시아: 내용없음

■ 호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는 날씨가 화창하고 평년보다 다소 따뜻하여 여름 작물의 발달이 촉진되었고 수확량 전망을 양호 또는 우수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최대 2° C 높았고 최대 기온은 대체로 섭씨 30도대였다. 남쪽으로 더 멀리,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와 빅토리아에 폭우 (25~100 mm)가 내려서 벼와 면화에 추가로 필요했던 수분을 해소해주었지만 지역에 홍수를 일으켰다. 호주의 남동부에서 대부분의 여름 작물들은 관개된다.

■ 아르헨티나: 이 지역의 많은 곳에 다시 철 아닌 강우가 내려서 영양기 및 생식기 여름 작물들을 위한 수분 매장량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코르도바에서 엔트레 리오스까지 뻗어 있는 넓은 지역에 가장 많은 비 (50~150 mm)가 집중적으로 내렸는데, 여기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북서부에 있는 농업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라 팜파에 있는 그밖의 구역들에는 좀더 가벼운 비 (25 mm 또는 그 미만)가 내렸는데 두 주 모두 최남단 농업 구역들에는 10 mm 미만 만이 기록되었다. 산타페 북부에서 포르모사 동쪽까지 적당한 비 또는 폭우 (25~10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내린 더 먼 북쪽은 출현기 및 영양기 중에 있는 면화의 전망을 더욱 개선해주었다. 살타 북부 인근에 비슷한 양이 기록되었지만 그밖에는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와 차코 서부의 여름 작물 지역들을 포함하여 더 건조한 조건들 (곳곳마다 10 mm 미만의 총 강우량)이 우세했다.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2° C 높았고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0도 중상위권에 도달하여 아르헨티나 전역에서 여름 곡류, 유지작물 및 면화의 빠른 발달을 촉진했다. 아르헨티나에서 나온 보고들에 따르면 여름 작물 파종은 대부분 완료되었고 옥수수과 대두는 상당량이 생식기와 종실비대기를 지나고 있었다. 또, 농업부는 조기 파종했던 북부 농업 지역을 중심으로 해바라기는 17% (작년의 26% 대비) 수확되었다고 집계했다.



■ 브라질: 브라질 중부와 남부의 많은 곳들에 걸쳐서 유익한 비가 계속되면서 다양한 발달기 중에 있는 여름 작물들을 위한 수분을 적기에 공급했다. 마토 그로소 중부에서 리오 그란데 도 술까지 총 25~100 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그 비는 특히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환영했는데 이곳은 재배철 대부분의 기간 동안 평년보다 건조한 경향을 보여왔다. 리오 그란데 도 술 정부에 따르면 1월 28일 현재 대두는 53 %가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었고 한편 조기 파종한 옥수수는 27% 수확되었다. 파라나에서는 1월 25일 현재 대두와 첫 작물 옥수수는 각각 89% 및 77%가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었다. 이번 재배철, 파종 지연으로 발달이 지체되었지만 마토 그로소에서는 여름 작물들이 그 수분 덕을 보았다. 정부 보고서들에 따르면 1월 29일 현재 대두는 5% 수확되어 작년과 비교해서 22 포인트 뒤쳐져 있었다; 그 결과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2% 및 31% 파종되어 두 작물 모두 작년 철과 비교해서 또한 많이 뒤쳐져 있었다. 한편, 바히아 서부와 그 주변에 있는 대두와 면화 지역을 포함해서 북동부의 많은 곳에서는 더 건조한 상태 (대부분의 지역에서 총강우량이 10 mm 미만)가 지배하였다. 그 건조함이 남쪽으로 향하여 미나스 제라이스 전체로 확장되어 커피와 사탕수수는 물론이고 미숙한 여름 작물들에게 필요한 수분이 줄어들었다.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약간 높아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대 중후반까지 도달)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빠른 작물 발달을 촉진했다.